#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아동의 기질 및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Maternal Emotion Expression, Temperament and Self-Esteem on Emotion Regulation among Children

이경님*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Lee, Kyung-Nim**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d the path model of maternal emotional expression, temperament and self-esteem on emotion regulation among children. The subjects were 487 5th and 6th graders. Data was gathered through questionnaires reported by children and their mothers and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activity level' temperament and maternal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directly affecte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Children's 'emotionality' temperament and maternal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directly affected adaptive emotion regulation. Children's 'approach-flexibility' temperament and self-esteem directly affected both maladaptive and adaptive emotion regulation. Maternal emotional expression and children's self-esteem mediated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emotion regulation. Additionally,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children's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was the children's 'activity level' temperament, and the most important variable for adaptive emotion regulation was the children's 'emotionality' temperament.

**Keywords** : emotion regulation, maternal emotion expression, temperament, self-esteem

## Ⅰ. 서론

아동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성공적인 사회적 적응을 위하여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여야 한다.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문화적 정서표출규칙(emotional display rules)을 따르기 위하여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해야 하는 첫 번째 기술이다(Shaffer, 1999). 적절한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은 아동의 성공적인 또래관계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며 바람직한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이 또래간의 유능성이 높으며(임연진, 2002) 친구관계 리더쉽과 안정적인 소속감을 보이고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박성연, 강지혼, 2005). 반면 정서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은 공격성이 높고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보이며(한유진, 2006)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경님, 2009; Eisenberg, *et al.*, 1993). 이처럼 많은 연구에 의해 정서조절 능력이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Lee, Kyung-Nim
Tel: 051-200-7311, Fax: 051-200-7312
E-mail: knlee@dau.ac.kr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행동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서조절 능력의 결핍으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는 청소년기 직전의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조절 능력의 예언변인을 살펴보는 연구는 의의 있다고 본다(임희수, 박성연, 2002).

정서조절능력이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표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에 적절하게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인 자극상황에서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포함된다(박서정, 2004).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부적응적으로 표출할 경우 성인이나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Eisenberg, et. al., 1995)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적응적 정서조절은 대인관계에서 생산성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높인다(Thompson, 1994). 정서조절능력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최소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이 포함되므로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적응적 정서조절의 두 측면으로 구성된다(박서정, 2004).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정서의 사회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모 요인 등 외적, 환경적 특성과 아동의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받아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다(Calkins, 1994).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어머니는 정서표현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된다. 아기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머니는 기쁨, 즐거움, 흥미를 표현하고 이는 아기들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모델이 된다(Malatesta, & Haviland, 1982). 또한 아동이 성장 하면서 부모들이 분노를 신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언어적으로 표현하며 감정을 통제하는 것도 관찰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억제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Saarni, *et al.*, 1998). 이처럼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관찰하고 이를 인식하여 이해하게 되면서 상황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정서의 강도를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Eisenberg, & Fabes, 1994). 많은 연구들에 의해 어머니가 어떠한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 아동의 정서표현과 정서조절능력이 다름이 밝혀지고 있다. 부모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의 억제와 효율적인 감정조절능력에 도움이 되며(백미애, 2002) 분노나 슬픔 등의 부정적 정서를 지나치게 자주 혹은 강도 높게 표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낮은 정서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nham *et al.*, 1997). 또한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고 부정적 정서표현을 적게 할수록 유아는 공격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서혜린, 이영, 2008)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풍부한 정서경험을 하고(Eisenberg *et al.*, 1998) 정서표현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ssidy *et al.*, 1992).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의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개인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은 기질이다. 기질은 정서적 반응의 질과 정도 및 환경적 반응 양상에서 식별되는 영아 성격의 개인차로(송명자, 1995; Goldsmith & Alansky, 1987) 정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도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임희수, 박성연, 2002). 따라서 아동이 어떠한 기질적 특성을 보이는가에 따라 정서조절능력의 정도는 다를 수 있음을 가정 할 수 있다. 기질과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에 의하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수줍음, 사회성, 정서성의 기질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정서성이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김지윤 외, 2008). 또한 온순하고 적응성의 기질이 높은 영아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며(나양균 외, 2006) 아동의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낮았고 접근성과 긍정적 정서 기질이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지숙, 박성연, 2008). 그리고 유아의 정서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라리, 김희진, 2007). 이처럼 많은 연구들에 의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기질적인 특성은 중요한 예측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질의 특성 중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치되지 않고 있으나 대체로 정서성과 활동성 및 접근・융통성의 기질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기질 외에도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수용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잘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유지하고 표현하며 정서를 적절히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서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능동적인 양식의 정서조절을 많이 하였으

며(민경환 외, 2000) 자아존중감과 효율적인 정서조절방략인 인지적 재해석 방략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손재민, 2004).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이 슬픔과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에 능동적이고 기능적인 대처양식의 정서조절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되었다(Carver, *et al.*, 1989).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정서조절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아동의 기질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많았다. 먼저 아동의 기질적인 특성의 차이는 아동이 다른 사람들 및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hiner & Caspi, 2003, 본스타인, 램브, 2005/2009 에서 재인용).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정진아, 2003), 유아의 기질이 순한 경우 어머니는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고(임양미, 1994) 아동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제한적임을(임희수, 1994) 밝히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의 정서표현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추정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나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았다는 보고(이윤경, 2008)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적응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Chess & Thomas, 1984) 자신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대한 평가와 느낌인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Shaffer, 1999)을 감안 할 때 아동의 기질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요약해보면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면서 또한 동시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기질적 특성은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야기하고 다시 이러한 차이는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떠한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높거나 낮게 되어 정서조절능력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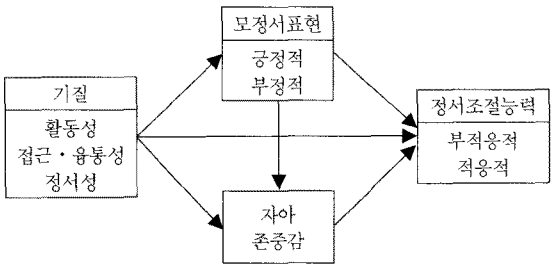
이와 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서로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정서조절능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 할 수 있다. 즉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아동의 자아존중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간접적 영향도 미치리라 가정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확인 할 수 있으나,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어머니의 정서표현, 아동의 기질 및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통하여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는 없어 이를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효과적인 정서조절이란 부적응적 정서를 억제하며 적응적 정서를 유지하고 강화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Shaffer, 1999) 두 측면의 정서조절을 함께 고려하여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적응적 및 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관계있는 중요한 관련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로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훈련이나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직·간접적 영향은 어떠한가?




[그림 1] 가설적 경로모형

# Ⅱ.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하는 공립초등학교 3개교의 5, 6학년에 재학 중인 487명의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이들 아동 중 남아는 246명 여아는 241명이었으며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41-45세가 189명(38.8%) 36-40세가 142명(29.2%) 46-50세가 126명(25.9%), 아버지의 경우 41-45세가 168명(34.5%) 46-50세가 159명(32.6%) 36-40세가 84명(17.2%)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의 경우 초대졸 이상이 265명(54.5%) 고졸이 212명(43.5%), 아버지의 경우 초대졸 이상이 287명(58.8%) 고졸이 176명(36.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직업 있음이 277명(56.9%) 직업 없음이 210명(43.1%),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이 153명(31.4%) 사무・기술직이 152명(31.2%) 피고용기능인이 136명(27.9%)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자신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보통 282명(57.9%) 부유한 편 117명(24.0%) 가난한 편 88명(18.0%)으로 지각하였다. 이로써 연구대상 아동의 부모의 연령은 대부분 36-45세이며,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 과반수이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과 사무기술직이 가장 많고 직업 있는 어머니가 과반수를 조금 넘었으며 연구대상 아동들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대체로 보통이상이라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척도, 기질척도, 어머니의 정서표현척도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척도와 일반적 배경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ields와 Cicchetti(1995)가 개발한 The Emotion Regulation Check List(ERC)를 박서정(2004)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정서조절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12문항과 적응적 정서조절 8문항 모두 20문항의 어머니 평정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 평정용으로 재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척도의 요인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 20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Screetest와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하여 2개 요인으로 지정한 후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법을 실시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40이 안되는 1문항은 제외하고 모두 19문항에 대하여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두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모두 11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4.04%를 설명하였으며 부적응적 정서조절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모두 8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16.07%를 설명 하였으며 적응적 정서조절로 명명하였다. 그리하여 두 번째 요인까지 설명되는 변량은 모두 40.11%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기분의 변화가 심하며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를 들면 '폭발하듯이 화를 내며 쉽게 짜증을 낸다' 등이다. 적응적 정서조절은 상황에 적절한 정서표현을 하며 공감, 정서지각이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를 들면 '또래가 말을 걸면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대한다' 등이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평정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정서조절 혹은 적응적 정서조절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84, 적응적 정서조절 .76으로 나타났다.

### 2)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명숙(1994)의 '아동 및 청소년 기질 척도'를 임희수(2001)가 일부 수정하고 사용한 척도 중 정서조절능력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박지숙, 박성연, 2008) 활동성, 접근・융통성, 정서성의 3개 하위요인을 선정하고 아동용으로 재구성하였다. 활동성은 모두 6문항으로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활동의 수준을 의미하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접근・융통성은 모두 12문항으로 자극에 대하여 얼마나 잘 접근하는가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의 정도를 의미하며 '새로운 상황에 잘 접근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정서성은 모두 7문항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의 균형정도를 의미하며 '자주 미소 짓는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의 4점 평정 척도이며 접근・융통성과 정서성의 부정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성, 접근・융통성, 정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는 활

동성, .80, 접근·융통성, .70, 정서성, .83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정서표현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와 Fox(1995)의 가정에서의 자기표현 질문지(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를 한영민(2004)이 번안하고 수정하여 사용한 정서표현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4개의 하위영역, 9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영민(2004)은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5점척도 40문항으로 재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 중 의미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제외하고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각 하위영역에서 17문항씩 모두 3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정서표현 척도의 요인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 34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Screetest와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하여 2개 요인으로 지정한 후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법을 실시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40이 안되는 2문항은 제외하였고 최종 32문항에 대하여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두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모두 16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4.29%를 설명하였으며 긍정적 정서표현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모두 16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16.47%를 설명하였으며 부정적 정서표현으로 명명하였다. 그리하여 두 번째 요인까지 설명되는 변량은 모두 40.76%로 나타났다. 각문항의 예를 들면 긍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감동 했을 때 이를 표현한다', 부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가족의 행동에 대해 불평한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는 긍정적 정서표현 .91 부정적 정서표현 .87로 나타났다.

4)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박민정(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평정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는 .83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2008년 11월 25일 부산시의 공립 초등학교 1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5, 6학년 52명의 아동과 이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 각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절차의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본 조사는 2008년 12월 8일에서 12일에 걸쳐 부산시의 3개 공립초등학교를 임의표집 하여 5학년과 6학년 모두 18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 방법을 설명하고 아동용은 아동들에게 직접 질문지가 배부되고 그 자리에서 회수되었다. 어머니용은 아동들을 통해 그들의 어머니에게 전달되고 이틀 후 회수하도록 하였다. 아동용은 모두 525부가 회수되었으나 어머니용이 회수되지 않거나 누락된 문항이 있는 질문지는 제외하고 최종 487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과 Amos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항 간 내적 일치도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아동의 기질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변인들 간의 경로모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모형 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절대적합지수로 표준카이자승치($x^2$값을 자유도로 나눈값), GFI, AGFI, RMSEA를, 증분적합지수로 TLI, NFI를 사용 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보하기 위한 수정은 이론적 정당성과 수정지수에 근거 하였다(김계수, 2007).

## Ⅲ. 결과 및 해석

### 1. 기초분석 :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먼저 어머니의 정서표현, 아동의 기질,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활동성

〈표 1〉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 | 1 | 2 | 3 | 4 | 5 | 6 | 7 | 8 |
|---|---|---|---|---|---|---|---|---|
| **기질** | | | | | | | | |
| 1. 활동성 | 1 | | | | | | | |
| 2. 접근・융통성 | -.083 | 1 | | | | | | |
| 3, 정서성 | .090* | .415*** | 1 | | | | | |
| **어머니의 정서표현** | | | | | | | | |
| 4. 부정적 정서표현 | .080 | -.116* | -.052 | 1 | | | | |
| 5. 긍정적 정서표현 | .061 | .186 | .112* | -.166*** | 1 | | | |
| 6. **자아존중감** | -.281*** | .408*** | .282*** | -.072 | .198 | 1 | | |
| 7. **부적응적 정서조절** | .414*** | -.206*** | -.079 | .194*** | .025 | -.267*** | 1 | |
| 8. **적응적 정서조절** | -.089 | .503*** | .503*** | -.108* | .237*** | .368*** | -.097* | 1 |
| 평균 | 2.14 | 2.85 | 2.73 | 2.37 | 3.80 | 3.00 | 1.70 | 3.55 |
| 표준편차 | .58 | .39 | .48 | .49 | .58 | .50 | .54 | .62 |

*$p$<.05, ***$p$<.001

기질($r$=.414, $p$<.001)과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r$=.194, $p$<.001)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접근・융통성 기질($r$=-.206, $p$<.001)과 자아존중감($r$=-.267, $p$<.001)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접근・융통성 기질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아동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정서성 기질 및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표 1>에 의하면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r$=.237, $p$<.001), 접근융통성($r$=.503, $p$<.001) 및 정서성($r$=.503, $p$<.001) 기질과 자아존중감($r$=.368, $p$<.001)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r$=-.108, $p$<.05)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또한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적게 할수록, 접근・융통성과 정서성의 기질 및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은 적응적 정서조절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은 활동성 기질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아동의 기질 및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어머니의 정서표현, 아동의 기질,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적 경로모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고 최적의 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 $x^2$값은 118.48($df$=5, $p$<.001)이며 GFI는 .949, AGFI는 .631, RMSEA는 .216, TLI는 .023, NFI는 .825로 적합도가 수용기준 이하로 적합도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수정을 고려하였다. 결과에서 산출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검토한 후 측정오차간의 상관을 허용하여 오차항간의 공변량을 자유화시켜 최초의 연구모형에서 더 적절한 모형으로 수정하였다(김계수, 2007). 수정 모델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적합도 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절대적합지수의 경우 $x^2/df$는 2.4, GFI는 .999, AGFI는 .955이고, RMSEA는 .054이며 증분적합지수의 경우 TLI는 .938, NFI는 .996으로 모든 값이 적합기준에 부합되므로 경로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표 2〉 경로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 | 절대적합지수 | | | | 증분적합지수 | | |
|---|---|---|---|---|---|---|---|
| | $x^2/df$ | $p$(유의확률) | GFI | AGFI | RMSEA | TLI | NFI |
| 적합지수 | 2.4/1 | $p$>.05 | .999 | .955 | .054 | .938 | .996 |
| 적합기준 | $x^2/df$<3 | $p$>.05 | >.90 | >.90 | <.08 | >.90 | >.90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경로모형의 경로계수에 따라 최종 경로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 의하면 아동의 활동성 기질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으로 정적영향($\beta$=.358, $p$<.001)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beta$=-.282, $p$<.001)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접근・융통성 기질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부적영향($\beta$=-.111, $p$<.05)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beta$=-.103, $p$<.05)과 긍정적인 정서표현($\beta$=.179, $p$<.001) 및 자아존중감($\beta$=.288, $p$<.001)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성 기질은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자아존중감($\beta$=.173, $p$<.001)을 매개로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 영향($\beta$=.15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자아존중감($\beta$=.145, $p$<.001)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beta$=-.116,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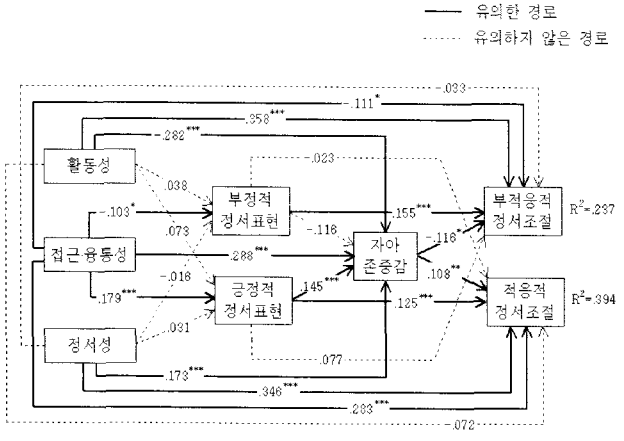
또한 [그림 2]에 의하면 아동의 정서성 기질은 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 영향($\beta$=.346, $p$<.001)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beta$=.173, $p$<.001)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접근・융통성 기질은 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beta$=.283, $p$<.001)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beta$=.179, $p$<.001)을 매개로, 또한 자아존중감($\beta$=.288, $p$<.001)을 매개로하여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활동성 기질은 적응적 정서조절에 자아존중감($\beta$=-.282, $p$<.001)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beta$=.125, $p$<.001)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beta$=.145, $p$<.001)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beta$=.108, $p$<.01)은 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유의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형의 다중상관자승치를 살펴본 결과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경우 23.7%였으며 적응적 정서조절의 경우 39.4%였다.

이들을 종합하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직・간접 효과와 총 효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활동성 기질이 가장 큰 직접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총 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 접근・융통성 기질, 자아존중감의 순으로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정서성 기질은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매우 미약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표 3>에 의하면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정서성 기질이 가장 큰 직접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총 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접근・융통성 기질,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자아존중감, 활동성 기질의 순으로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인과효과가 큰 것




[그림 2]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변인간의 최종 경로모형

〈표 3〉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효과

| |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
| 부적응적 정서조절 |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 | .16 | .05 | .20 |
| |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08 | -.02 | .06 |
| | 활동성 | .36 | .03 | .39 |
| | 접근・융통성 | -.11 | -.03 | -.15 |
| | 정서성 | -.03 | -.02 | -.05 |
| | 자아존중감 | -.12 | - | -.12 |
| 적응적 정서조절 |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 | -.02 | -.05 | -.07 |
| |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13 | .10 | .23 |
| | 활동성 | -.07 | -.03 | -.10 |
| | 접근・융통성 | .28 | .03 | .31 |
| | 정서성 | .35 | .02 | .37 |
| | 자아존중감 | .11 | - | .11 |

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매우 미약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아동의 기질 및 자아존중감의 직, 간접적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적응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의 중요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활동성 기질은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가장 큰 직적접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과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활동성 기질은 감정발산적 정서조절 방식과 관련이 있어(임희수, 박성연, 2002)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 두려움, 흥분, 짜증 등을 있는 그대로 발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자아존중감을 야기하여 부적절한 정서를 많이 표출하게 하므로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가장 큰 인과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 능력이 활동성 기질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연구(박지숙, 박성연, 2008) 활동성 기질이 부정적 정서조절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임희수, 박성연, 2002)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활동성 기질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가장 위험한 요인이며 적응적 정서조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아동의 바람직한 정서조절능력의 함양을 위하여 활동성 기질과 조화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활동성을 완화 할 수 있는 훈련이나 프로그램이 매우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아동의 정서성 기질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인과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정서성 기질은 자아존중감을 높게 하여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부적인 간접적인 영향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정서성의 기질은 긍정적 정서조절과 정적관계가, 부정적 정서조절과는 부적관계가 나타난 연구(안라리, 김희진, 2007)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능동적인 정서조절 양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보고(민경환 외, 2000)에 의해 지지되었다. 따라서 미소, 기쁨 등 긍정적 정서를 자주 표현하며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 할 수 있는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적응적 정서조절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정서성 기질은 자아존중감도 증진하게 하여 이는 다시 적응적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적응적 정서조절도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정서성의 기질이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 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써 아동의 바람직한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정서성 기질을 충분히 발달시키며 지지할 수 있는 양육환경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접근·융통성 기질은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긍정적 정서표현 및 자아존중감을 매개로하여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는 긍정적인 간접 영향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감소하게 하는 간접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자극에 쉽게 접근하며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이 용이한 접근·융통성의 기질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조절을 감소시키며 적응적 정서조절을 증진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접근·융통성의 기질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감소시키며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을 유도하여 다시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을 높여주고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낮게 하는 간접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접근·융통성의 기질이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다는 연구(박지숙, 박성연, 2008)와 아동의 순한 기질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으며(임양미, 1994) 아동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제한적이라는 연구(임희수, 1994)에 의해 지지된다.

이처럼 아동의 접근·융통성 기질이 어머니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리라(Shiner & Caspi, 2003, 본스타인, 램브, 2005/2009 에서 재인용) 가정하고 인과관계를 설정한바 대체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가 어떠한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또한 접근 융통성의 기질은 자아존중감을 높여주어 적

응적 정서조절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로써 주위 환경에 잘 접근하며 새로운 상황에도 쉽게 적응하는 접근·융통성 기질은 아동의 바람직한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과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적응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들의 일치된 결과는 아동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활동성 기질은 부정적 정서조절과, 정서성 및 융통·접근성 기질은 적응적 정서조절과 더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적응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과 관계가 있으며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은 성장하면서 어머니를 모델로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학습하므로(Saarni *et al.*, 1998) 어머니의 잦은 부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낮은 정서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Denham *et al.*, 1997),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효율적인 감정조절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백미애, 2002)와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적응적 정서조절을 높이고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이윤경, 2008)에 의해 지지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적응적 정서표현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증진하여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고 긍정적 정서는 유지하고 강화하여 바람직한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보호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능동적인 양식의 정서조절을 많이 하며(민경환 외, 2000)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에 능동적이고 기능적인 대처 양식의 정서조절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연구(Carver, *et al.*, 1989)와 거의 일치하였다. 이로써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능력 간에 중요한 매개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활동성 기질과 적응적 정서조절 간에, 정서성과 접근·융통성 기질과 부적응 및 적응적 정서조절 간에 매개변인이 되어 정서조절능력을 조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높은 활동성 기질은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게 하여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증진시키고 적응적 정서조절은 감소하게 하는 간접적 영향이 나타났다. 반면 높은 정서성과 접근·융통성 기질은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게 하여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감소하게하고 적응적 정서조절을 증진 시키는 간접적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적응 및 적응적 정서조절 간에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며 이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감소하게 하고 적응적 정서조절을 증진하게 하는 간접적 영향도 나타났다. 이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활동성, 정서성과 접근·융통성 기질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매개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바람직한 정서조절능력의 보호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활동성 기질과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아동의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접근·융통성 기질과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부적응 및 적응적 정서조절에 공통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아동의 접근·융통성 기질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에,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에 매개적 역할을 보인다. 셋째, 아동의 활동성 기질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가장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성 기질은 적응적 정서조절에 가장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머니의 정서표현, 아동의 기질 및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 중 활동성 기질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가장 위험한 요인이며 정서성 기질은 적

응적 정서조절의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아동의 기질 및 자아존중감에 한정하여 그 경로를 살펴보았다. 그 외 정서조절방략의 아동의 인지적요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비롯한 가족환경 및 또래관련요인도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들을 포함한 좀 더 다양한 관련변인들이 선정되어 이들 간의 경로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경로를 횡단적 연구방법에 국한되어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관련변인간의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경로 및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종단적 연구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정서조절, 어머니의 정서표현, 기질, 자아존중감

## 참 고 문 헌

김계수. (2007). **Amos 16.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33-150.

나양균, 이영환, 한지연. (2006). 만 1세 영아의 기질과 사회·정서 능력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44, 19-36.

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부정적 정서조절 방략에 관한 연구 : 정서 종류와 개인변인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2), 1-16.

박민정. (2002).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서정. (2004).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 조절 능력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성연, 강지혼. (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박지숙, 박성연. (2008).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5(4), 1-6.

백미애. (2002). 부모의 정서표현에 따른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과 감정조절능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본스타인,마크, 램브,마이클. (2005). 발달과학. 곽금주, 김민화, 신혜은, 김연수, 이새별, 이승진 공역 (2009). **발달과학**. 서울: 학지사.

서혜린, 이영. (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33-56.

손재민. (2004). 정서조절방략 사용에서의 개인차: 인지적 재해석과 정서표현억제의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이경님. (2009).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부모변인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7), 1-12.

이명숙. (1995). 기질 및 또래지지가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단기종단적 패널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윤경. (2008). 부모의 정서표현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라리, 김희진. (2007). 유아의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2), 133-145.

임연진.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임양미. (1994).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관련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희수. (1994).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임희수. (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진아. (2003).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유진. (2006).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6(4), 85-100.

한영민. (2004). 부모의 정서표현 및 유아에 대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 조절능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alkins, S. D. (1994). Origin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 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 59*, nos. 2-3, serial no.240).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arver, C. S., Scheier, N. F., & Weintanb, J. F. (1989). Assessiny Coping Strategies :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67-283.

Cassidy, J., Parke, R. D., Vygotsky, L., & Braum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3), 603-618.

Chess, S., & Thomas, R. (1984). *Origins and Evaluation of Behavior Disorders*. New York : Brumer/mazel.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1), 65-86.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l,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5), 1418-1438.

Eisenberg, N., Fabes, R. A., Murphy, B., Masik, P., Smith, M., & Karbon, M. (1995). The role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i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6*(5), 1360-1384.

Eisenberg .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ill-Palmer Quarterly*, *40*(1), 138-156.

Goldsmith, H. N., & Alansky, J. A. (1987). Maternal and infant temperamental predictions of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6), 805-816.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Malatesta, C. Z., Haviland, J.M. (1982). Learning display rule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3*, 991-1003.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Saarni, C., Mumml, D. C., & Campos, J. J. (1998). Emotional development : Action,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s. In W. Damon (Editor-in-Ch ief)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237-309*). New York. Wiley.

Shaffer, D.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5th ed).; Childhood & Adolescence*. Brooks/cole.

Shields, A. & Cicchetti, D. (1995). *The development of an emotion regulation asessment battery: Reliability and Validity among at-risk grade school children.* Poster presental at the Society for Researe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Shiner, R., & Caspi, A. (2003). Personality differ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t : Measurement, development, and consequenc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1), 2-32.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접 수 일 : 2009. 08. 31.
수정완료일 : 2009. 11. 23.
게재확정일 : 2009. 12. 02.